

CITY OF WATER

「물의 수도」 도쿄

거리가 하천이나 수로에 둘러싸여 있던 에도시대. 지방에서 생활 물자가 배로 운반되는 등 수로이동은 당시의 경제나 생활에 소중한 존재로 자리하며 에도는 물의 수도로서 번창했습니다. 도시 만들기의 다양한 프로젝트로 건강한 수변 공간을 조성해 갑니다.

기타자와 강 푸른길·가라스야마 강 푸른길

현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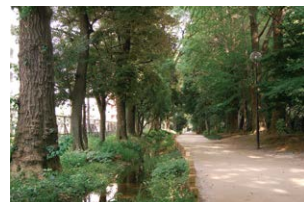
가라스야마 강 푸른길



과거 강이었던 지역이 지하 배수구가 되어 지금은 위로 수변이나 녹지 산책로가 정비 되어 있습니다.

A 다마가와 상수·나이토 신주쿠 분수산책로

현재



신주쿠교엔 내에 과거의 다마가와 상수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산책로를 정비했습니다.

B 시부야 강

과거



현재



미래



맑은 물을 부활시키고 강가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.

C 니혼바시

에도시대



쇼와 초기



현재



전후(戰後)는 수도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 과거의 경관이 새롭게 변모했습니다.

